“1이닝 투혼, 잘하면 본전 못하면 역적” 중간계투의 비애

“3~4경기 잘하다가 1경기 못하면 방어율 급등
하루 3~4차례 몸만 풀다가 집에 갈땐 허무해”


안지만

선발투수처럼 돋보이지 않는다. 마무리투수처럼 노고를 인정받지도 못 한다. 그러나 팀 마운드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바로 불펜투수들이다. 한국프로야구의 역대 최고 마무리로 꼽히는 오승환(32·한신)도 항상 “내가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지만이를 비롯한 중간계투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러나 불펜투수들의 평가기준인 ‘홀드’라는 기록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요즘 같은 타고투저 시대에 중간계투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 주어진 1이닝을 잘 막으면 ‘본전’이지만 1점이라도 주면 ‘역적’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던지는 이닝이 적기 때문에 실점 한 번이면 방어율도 무섭게 치솟는다. A구단의 한 좌완투수는 “3~4경기를 쭉 잘 던져도 1경기에서 2실점하면 방어율이 쭉 올라간다”며 “방어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 불펜투수인데 구단을 비롯해 사람들은 숫자만 보고 그 투수를 평가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간계투들의 고충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선발은 5일에 한 번, 마무리는 세이브 상황이나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등판을 준비하지만 중간계투는 매일, 급변하는 경기 내용에 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필승조와 추격조가 나뉘어있는 팀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팀은 언제 등판할지 모른 채 몸만 풀어야할 때가 대부분이다.

B구단의 한 우완투수는 “그나마 경기에 나가면 괜찮다. 그런데 하루에 불펜에서 3~4번 몸만 풀고 집에 갈 때는 허무하다”며 “보통 한 번에 20개 정도 공을 던지는데 경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 하나도 허투루 던질 수 없다. 3번 정도 몸을 풀면 60개는 던지는 것 같다. 그런 날은 힘들어서 경기에 나가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B구단 마무리투수는 “솔직히 나는 언제 등판할지 경기를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중간계투들은 정말 고생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불펜에서 60개 이상의 공을 던지면 경기에 못 나가게 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중간계투라는 보직 특성상 주어진 이닝에 점수를 주지 말아야하고, 타고투저 시대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고충이 많다.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올 시즌 외국인선수의 전성시대가 열렸지만, 일부 외국인선수는 구단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LG 조쉬벨, 두산 크리스 볼스테드, 한화 앤드류 앨버스(왼쪽부터)는 퇴출과 잔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조쉬벨·볼스테드·앨버스…보내? 말어?

LG·두산·한화, 계륵용병 골머리

**벨, 떨어지는 볼 대처 안되면 아웃
볼스테드 컨트롤 기복 현재 수정 중
앨버스 중간계투 전환 기회 주기로**

외국인선수 전성시대에 ‘계륵’이 된 용병들이 있다. LG 조쉬벨, 두산 크리스 볼스테드, 한화 앤드류 앨버스 등이다. 퇴출과 잔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구단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군 간 LG 조쉬벨

LG 양상문 감독은 27일 벨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벨은 2군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타율 0.267에 10홈런, 39타점을 기록 중이었다. 30홈런·100타점을 기대하는 외국인타자로서는 낙제점이다. 퇴출설이 나오는 건 비단 이 때문이 아니다. LG는 현재 8위다. 이제 시즌 전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지금 당장은 4강 싸움에서 멀어져 있다. 벨을 굳이 1군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양 감독은 “벨의 복귀시점은 미정이다. 지금처럼 떨어지는 볼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기용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상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활용하지 않을 용병을 굳이 돈까지 지불하면서 잡아둘 이유도 없다. LG는 선택의 기로에서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위는 괜찮은데 기복이 큰 볼스테드

두산은 키가 207cm인 볼스테드를 영입하면서 더스틴 니퍼트(203cm)와 함께 선발진의 트윈타워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30일까지 4승6패, 방어율 6.07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15번의 등판에서 6이닝 이상을 던진 건 4번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에서는 5이닝을 채 채우지 못하고 패전투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4강 싸움에서 밀린 두산으로서는 용병 교체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두산 운영팀 관계자는 “구위 자체는 좋다. 지금 미국에 볼스테드만한 구위를 가진 투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켜볼 예정”이라며 “문제는 기복인데 변화구 제구가 잘 되면 좋은 피칭을 하다가 제구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성향이 있다. 문제점을 코칭스태프가 인지하고 수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70일째 무승 앨버스

한화 앨버스는 4월 20일 대전 LG전 승리 이후 70일 동안 승리가 없다. 지난달 첫 3경기에서는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도 승리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무너졌다. 최근 2경기에서는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됐다. 시즌 방어율은 7.12까지 치솟았다. 부진 탈출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구단의 시름이 깊어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퇴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화는 얼마 전 케일럽 클레이를 퇴출하고 새로운 외국인투수 라이언 타투스코를 데려왔다. 대개 용병교체는 순위 싸움에서 반등을 노릴 때 진행이 가능한데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는 용병 2명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구단은 앨버스의 활용방안을 고민 중이다. 투구수가 60개가 넘어가면 구위가 떨어지는 만큼 중간계투로 돌려 기회를 줄 계획을 갖고 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꼴찌 한화, 웬 특급호텔서 만찬?

구단, 1군 선수 초대 LG전 승리 격려

한화 선수단이 아주 특별한 만찬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분위기 전환과 확실한 격려를 위해 그룹 계열사에서 정성껏 마련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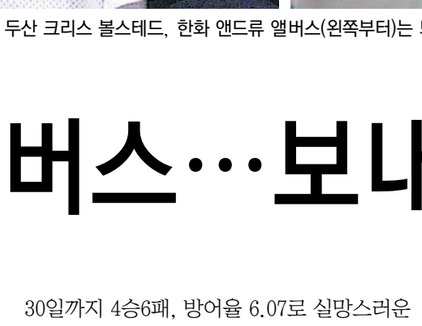
김응룡 감독을 비롯한 한화 선수단은 6월 30일 오후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7월 1일부터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와의 3연전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평소였다면 서울 원정숙소인 강남구 삼정호텔(특2급)에 내려 늘 먹던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을 터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중간에 거쳐야 할 행선지가 따로 있었다. 서울 태평로에 있는 더플라자 호텔 중식당이다.

더플라자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 호텔&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특급호텔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 전체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의미로 그룹 계열사에서 마련한 자리다. 감독님은 물론 1군 선수단 전원을 초청했다”며 “마침 선수단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동한 휴식일이라 적절한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가 있다. 한화는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66경기에서 23승 1무 42패로 최하위. 8위 LG와의 격차도 2.5경기로 다시 벌어졌다. 5월 20일~22일 목동 넥센전 이후 한 달 넘게 위닝시리즈를 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 매치업 상대는 바로 LG다. 2승 이상을 하면 다시 탈꼴찌를 노려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반등의 꿈은 한 발 더 멀어지게 된다.

모처럼 좋은 식당에서 모두가 함께 한 한 끼의 식사. 한화에게는 위기 앞에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기 위한 ‘의기투합’의 자리였던 셈이다.

배영은 기자



추신수, 미네소타전 4타수 1안타 1득점

텍사스의 추신수(사진)가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전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55(271타수 69안타)를 유지했다. 팀은 2-3으로 졌다.

나성범, 올스타전 3차 팬투표서 1위 탈환

NC 나성범이 ‘2014 한국야쿠르트 7even세븐 프로야구 올스타전’ 팬 인기투표 3차 중간집계에서 최다득표 1위를 탈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월 29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유효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차 집계 최다득표자였던 나성범은 웨스턴리그 외야수 부문에서 83만7128표를 얻어 2차 집계 최다득표자인 웨스턴리그 유격수 부문의 넥센 강정호(82만4886표)를 1만2242표 차로 제치고 최다 득표자가 됐다. 팬투표는 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결과는 7일 발표된다.

KBO 류대환 기획홍보부장, 사무차장 승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KBOP(KBO 마케팅 자회사)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류대환(51) 기획홍보부장을 7월 1일자로 KBO 사무차장 겸 KBOP 전무이사로 승진·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류 사무차장은 1990년 KBO에 입사해 운영과장과 기획팀장 등을 거쳐 2001년부터 KBOP 이사, 2012년부터 KBO 기획홍보부장을 지냈다.


김혁민

한화, 마지막 반등을 위한 몸부림

‘꼴찌 탈출 기회’ LG전 앞두고 마운드 또 변화
김혁민 선발 고려…앨버스는 한시적 불펜 검토

시즌 초반의 구상은 틀어진지 오래다. 한화 마운드가 또 한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다.

한화의 개막 5연전 선발 로테이션은 케일럽 클레이~송창현~유창식~앤드류 앨버스~이동걸. 지금 이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에 남아 있는 투수는 앨버스와 송창현 둘 뿐이다. 클레이는 퇴출됐고, 유창식은 부상으로 2군에 머물고 있다. 소방수 자리도 여러 명이 오갔다. 송창식으로 출발해 김혁민을 거쳤고, 윤규진으로 결정되나 싶었더니 어깨에 통증이 왔다. 마무리는 여전히 공석. 불펜 운용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겼다.

다행히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 희망을 안기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에이스로 자리를 굳힌 우완 이태양이다. 신예 조영우가 선발로 두 차례 등판해 빈 자리를 메웠고, 김기현이 불펜에서 롱릴리프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혁민의 복귀가 반갑다. 김혁민은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시즌 중간에는 어깨 통증으로 2군에서 재활했다. 그러나 6월 29일 포항 삼성전을 앞두고 70일 만에 1군 엔트리에 복귀했고, 이날 구원등판(3.1이닝 4안타 2실점)하며 기지개를 켰다. 한화 정민철 투수코치는 “김혁민은 몸이 많이 회복됐지만, 부상 여파로 인해 연투가 힘든 상태다. 팀 사정상 연투 부담이 많은 불펜보다는 선발투수로 나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선발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혁민은 2012년 완투승을 올리는 등 선발투수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보직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용병투수 앨버스다. 앨버스는 13경기서 2승 8패 방어율 7.12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9경기에서 선발 7연패. 첫 2~3이닝은 잘 버티지만 이후 연속안타를 맞고 와르르 무너지는 게 고질적인 문제다. 정 코치는 “앨버스 역시 한시적인 불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투구수가 적을 때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르면 LG와의 주중 3연전(7월 1~3일)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LG와의 3연전 이후 나흘 휴식한다. 이 시기에 감독님과 상의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